

## 제7과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이사야 8:1-9:7

8장도 7장에 이어 아람-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지키고자 앓수르의 도움을 구하는 아하스의 정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7장은 아하스의 친 앓수르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8장은 긍정적인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①.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유다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전쟁에서 유다를 보호할 것을 알리는 하나의 증표를 주신다.

1절-4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연합군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다를 위로하시기 위해 주신 증표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②. 하나님은 이사야 아들의 이름을 “노락이 빨리 온다”라는 뜻을 가진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는 유다를 공격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앓수르에 의해 속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다. 아울러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이 아이가 이사야를 아빠라고 부르게 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알려 주셨다. 실제로 735년 남유다를 침공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722년 앓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었다.

그런데 유다를 침공하던 이스라엘과 아람이 앓수르에 의해 저지당하자, 유다 백성들은 이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하스의 탁월한 정책으로 치부하며, 자만에 빠지게 된다. 이에 하나님은 자만에 빠진 유다를 다시 심판 하시겠다고 하신다.

8장 5절-10절을 읽고 자만에 빠진 유다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해 살펴보자.

③.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자만에 빠진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사야 개인에게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신다.

8장 11절-13절을 읽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신 백성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 지 묵상해보자.

④. 하나님은 이사야가 남유다와 앗수르의 동맹에 찬성하지 않을 때 백성들로부터 반역자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를 반역자라고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을 굽히지 말라고 하신다. 아울러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어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백성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에게 성소(모퉁이돌)가 되어줄 것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에게는 자신이 걸림돌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8장 14절-15절을 읽고 하나님이 모퉁이돌이 되는 인생과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인생에 대해 묵상하고 이를 비교해보자.

A. 하나님이 모퉁이돌이 되는 인생

B.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인생

⑤. 자만에 빠진 유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는 존재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의 심판이다.

16절-22절을 읽고 자만에 빠진 유다에게 내려진 영적인 심판과 상황의 심판이 각각 어떤 것인 지 살펴보자.

A. 영적인 심판(8장 16절-18절)

## B.상황의 심판(8장 19절-22절)

6. 하나님은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지만 결국 앗수르에 의해 다시 침공을 받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환난과 흑암의 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9장에서는 다시 유다가 환난과 흑암의 때에 맞게 될 하나님의 구원이 계시된다.

9장 1절-7절을 읽고 흑암과 절망의 때에 유다가 맞게 될 구원이 어떤 것인지 묵상해보자.

7. 다음 칼럼을 읽고 흑암과 고통의 때를 사는 자들에게 약속된 아들을 통한 구원에 대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

하나님은 친히 손을 펴시고 자신이 심판하신 땅을 회복시키신다.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백성들에게 추수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임한다. 아울러 주께서는 무거운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군인의 신과 피물은 옷이 불에 살라져 전쟁이 그치게 하신다. 그 땅에는 다시 고통이 없고 나라가 창성케 되며 백성은 즐거워한다.

그런데 이같은 하나님의 회복은 한 아기의 태어남에 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6절).

절대 고통중의 절대 희망은 한 아기의 나심에 있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완고하며 거역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와 사람들은 모두 흑암과 고통의 현실을 살아간다. 비록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영혼의 실상은 흑암과 고통이다. 단지 그들이 흑암과 고통의 때를 살고 있음을 세상의 헛된 소망과 기쁨이라는 마취제에 취해 자각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자기의 실존이 하나님을 떠나 흑암과 고통의 시간에 갇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아들을 통한 구원이 임하게 된다.

고통과 암흑이 가득한 현실의 해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닌 오직 한 아들에게 있다.

그가 신자의 내면에 임하시면 그는 고통과 암흑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이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된다.

신자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에게 있으며, 그 인생의 운명 또한 아들 안에 있다.